유안타 주간 추천 종목

2023.10.09 / 리서치센터

삼성화재 (000810)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E	2024E
영업이익	IFRS4		3,094	3,062
세전이익			3,131	3,103
지배순이익			2,319	2,280
PER (배)			4.3	4.4
PBR (배)			0.64	0.55
배당수익률 (%)			8.0	8.0

주: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관비, 자료: 유안타증권

- 회계제도 전환으로 증가한 회계상 이익이 valuation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당 확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 배당 확대 여력은 자본비율을 근거로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유리
-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본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리 민감도도 낮아 견조한 배당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타사대비 적은 해약환급금과 큰 처분이익잉여금으로 안정적인 배당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

기업은행 (024110)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E	2024E
순영업수익	6,771	7,746	8,498	8,671
영업이익	3,231	3,647	3,612	3,779
지배순이익	2,412	2,668	2,742	2,778
PER (배)	3.4	2.9	3.0	2.9
PBR (배)	0.28	0.26	0.26	0.25
ROE (%)	9.2	9.4	9.2	8.8
ROA (%)	0.64	0.64	0.62	0.60

주: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관비, 자료: 유안타증권

- 은행 내 유일하게 연말에만 한 차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주주환원 분산도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라는 특성 상 배당성향도 더 높기 때문에 4분기 배당수익률이 금융업종 전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9월 18일 종가 기준 8.8%)
- 최근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는 부동산PF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익스포저도 제한적으로, 전체 여신 중 PF 비중은 5% 미만
- 적극적인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경상 대손비용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로 인한 이익 변동성도 제한적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에 기반한 높은 배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

유한양행 (000100)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1,688	1,776	1,904	2,098
영업이익	49	36	100	134
지배순이익	103	95	74	116
PER	43.7	44.8	72.1	46.1
PBR	2.2	2.0	2.4	2.2
EV/EBITDA	41.6	51.4	34.8	27.3
ROE	5.4	4.9	3.6	5.4

주: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관비, 자료: 유안타증권

- 연내 MARIPOSA(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vs 타그리소) 임상 중간 결과 확인 가능하며 10월 ESMO에서 발표 유력, 경쟁 파이프라인 임상인 FLAURA2(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은 9월 11일 WCLC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며 전단계 임상인 OPAL Study에서 약 90%의 환자가 3/4 등급의 중증 부작용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
- FLAURA2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높은 부작용 빈도를 고려할 때 표준 치료법으로 타그리소 단독 요법이 여전히 유력하며 MARIPOSA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우위 확인시 새로운 표준 요법이 될 수있을 것으로 전망, 표준 요법 등재시 출시 1~2년차에 레이저티닙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